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 동력·정치지형·대권구도 좌우

총선 이후 정국 전망

4·15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요동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은 영 동력은 가일층 힘을 받으며 개혁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입법 측면에서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 내부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승리한다면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면서 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그동안 통합당이 비판해 온 '문재인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요구도 분출할 전망이다.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가 추진되는 한편, 권력비리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시황을 건 승부인 만큼, 어느 쪽이든 패배한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오는 8월이 임기인 이해찬 대표 체제는 급속한 리더십 외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친문(친문재인) 공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극심한 계파 갈등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당 역시 총선 패배가 확고한 대표 체제의 붕괴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보

與 승리면 국정운영 힘 받고

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 속도

2차추경 처리 경제살리기 탄력

野 승리면 조기 레임덕 불가피

정부 정책 폐기 요구 분출

광주·전남 정치권 지각변동

세력·세대 교체 급물살 탈듯

수통합' 과정에서 구성된 과도기적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등 당권 투쟁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총선은 약 2년 뒤의 차기 대선을 미리 가능하게 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총선이 후 각 당 간판 정치인들의 행보도 총선 승패로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종로에서 맞붙은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승리한 쪽이 탄탄한 '대권 가도'에 오르는 반면, 패배한 쪽은 치명상이 예상된다.

총선 결과가 민주당과 통합당, 어느 한 쪽의 '압승'과 다른쪽의 '참패'로 귀결되지 않은 채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과 열린 민주당·국민의당 등 '비례전진정당'이 확보하는 의석도 변수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총선 직후 각각 시민당·한국당과의 합당을 예고했지만, 합당 대신 '자매 교섭단체'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 시도가 이뤄질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점문 앞 사거리에서 울산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동구 김태선 후보, 남구를 박성진 후보, 이해찬 대표, 북구 이상현 후보.

있다.

한편, 광주·전남 정치권도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각변동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사실상 세력 및 세대 교체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광주·전남을 석권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세력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호남 중진들의 생존이 불투명한 반면 민주당 초선들이 대거 탄생할 전망이다. 실질적인 세대교체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호남 정치가 민주당의 중심에 다시 서기는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대부분 초선인데다 강력한 리더십이나 대중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정치권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가치를 선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 연대를 통해 민주당 내부의 정치적 공간과 세를 확보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국난 극복 위해 1당 만들어달라" 통합 "정부 폭주 견제에 힘 보태달라"

여야 지도부 대장정 마무리

여·야 지도부는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수도권 유세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난 극복' 선거라고 규정하고 이후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여당이 안정적 의석을 갖춘 1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과 '조국 사태' 등을 부각한 뒤 "독재나 다름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통합당에 힘을 모아달라는 '읍소' 작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과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정하는 선거"라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종로 보신각 앞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경고하지 않으면, 독재나 다름없는 폭주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절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회견을 열어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들어온 소위 '탄돌이'들이 지금도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일제히 찾았다.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박빙 지역에 화력을 집중했다.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며 양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제3지대 정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회견에서 "오만한 친문(친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민생당에 한 표를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거대 양당의 흡수 위헌정당으로 왜곡됐다며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14일간의 국토대중주를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4·15 총선을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 한 뒤 "현 정권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이끌고 갈 비전과 능력이 없다"며 국민의당 지지를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정적 의석 확보" "싸늘이 막아달라"...광주·전남 후보 마지막 지지 호소

광주 유권자 36%가 10~30대

부동표·숨은 표심 향방 촉각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광주·전남 지역 여야 각당은 마지막 표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첫 선거권을 획득한 '10대 표심'이 지역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낮았던 10~30대 유권자가 광주지역의 36.27%에 달하고 있어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표심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4일 여야는 지지 후보나 정당을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표심을 잡는 데 총력을 다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출·퇴근 인사와 거리 유세 등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선거

운동을 했다.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유권자와 직접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유세 차량에 홀로 타 도심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집중 유세 대신에 전화나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현역 의원이 중심이 된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정치 신인'인 민주당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인물론'을 내세워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민생당 후보들은 '민주당 싸늘이만은 막고 호남 정치에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민생당 현역이 중심이 된 민주개혁 세력의 통합으로 '호남 대통령'을 만든 데 마지막 정치 인생을 걸겠다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일부 무소속 후보들도 '당선 후 민주당

에 입당해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며 '민주당 마케팅'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당선에 공을 들이는 정의당, 민중당 등은 지역구 후보들과 이날 자정 선거 운동 종료 시점까지 '논스톱 유세'를 펼친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유의미한 정당 득표로 제3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달라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또 이들 정당은 숨어있는 세대별 표심의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광주·전남 도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선거인수는 광주 120만7972명, 전남 159만1919명이다. 광주 세대별 유권자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비교적 고루 분포된 반면, 전남은 50대와 70대 이상 노령층이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광주지역 세대별 유권자는 40대가 20.21%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 19.37%, 20대 17.23%, 30대 15.74%, 60대 12.95%, 70대 이상 11.25%, 10대 3.26% 순이다. 전남은 50대가 19.85%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 19.78%, 40대 16.55%, 60대 16.4%, 20대 12.75%, 30대 12.04%, 10대 2.62%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60~70%에 달하고 있어 민주당은 전체 18석 석권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층이 선거구에 따라 10~20%가량으로 분석, 일부 집 전지역은 반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062)531-3530 H.010-9229-3530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안과 1566-9988